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4월 13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쪽지시험을 통해 복습할 수 있다.

2.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TOPIK 문법 문제를 통해 문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조선 서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SAT KOREAN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5-11:00	<토끼전>을 읽으며 조서후기 사회의 모습 이해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TOPIK 문법 문제(11과) 풀기
4교시 12:00-12:40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 읽고 조선 후기 공부
숙제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자료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다음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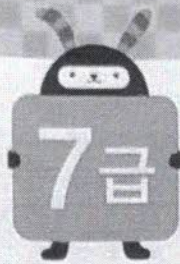
다음 주(4/20)은 수업이 없습니다.

바자회는 5/4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휘>

1. 우화 :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솝 이야기>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出

ㄷ → ㅅ → 出



한 발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나가다를 뜻합니다.

훈날 음출

ㄷ부수(총 5획)

出 出 出 出 出

필순에 따라 빈칸에 出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出	出	出	出	出	出	出
날출	날출	날출	날출	날출	날출	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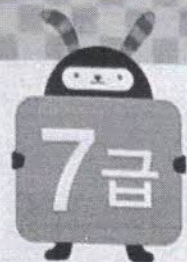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出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出入() : 어느 곳을 드나들.

(入 : 들 입)

• 外出() : 집이나 근무지 따위에서 벗어나 잠시 밖으로 나감. (外 : 바깥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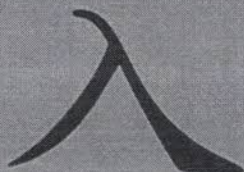
出의 상대 반의어-入(들 입)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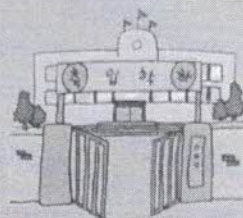
확인



흔들 음입



화살촉이나 칼처럼 생긴 날카로운 물건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들어가다**를 뜻합니다.



入부수 (총 2획)

入 入



필순에 따라 빈칸에 入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入	入	入	入	入	入	入
들입	들입	들입	들입	들입	들입	들입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入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入口 () : 들어가는 통로.

(口 : 입 구)

• 入場 () : 장내로 들어가는 것.

(場 : 마당 장)

入의 상대 반의어 - 出(날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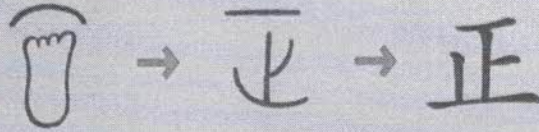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正



목표 지점(一)을 향해 발(止)을 내딛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바르다**를 뜻합니다.



훈바를 음정

止부수(총 5획)

正 正 正 正 正

필순에 따라 빈칸에 正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正	正	正	正	正	正	正
바를 정	바를 정	바를 정	바를 정	바를 정	바를 정	바를 정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正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正答() : 옳은 답.

(答 : 대답 답)

· 正午() : 낮 열두 시.

(午 : 낮 오)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直

直 → 直 → 直



눈 위에 직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으로, 시선이
똑바르다는 데서 곧다를 뜻합니다.

훈 곧을 음직

目부수(총 8획)

直 直 直 直 直 直 直 直

필순에 따라 빈칸에 直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直	直	直	直	直	直	直
곧을 직	곧을 직	곧을 직	곧을 직	곧을 직	곧을 직	곧을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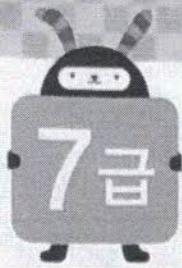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直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直立 () : 꼳꼳하게 바로 섬.

(立 : 설 립)

· 正直 () :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正 : 바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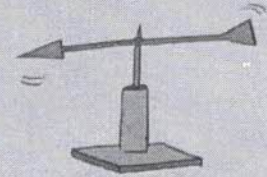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方

才 → 𠂆 → 方



칼자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네모, 방향, 방법 등을 뜻합니다.

훈모 음방

方부수(총 4획)

方 方 方 方

필순에 따라 빈칸에 方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方	方	方	方	方	方	方
모방	모방	모방	모방	모방	모방	모방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方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地方 () : ① 어느 방면의 땅. ② 서울 이외의 지역. (地 : 땅 지)

· 四方 () : 동, 서, 남, 북 네 방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四 : 녀 사)



확인 학습 3

 흐린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빈칸에 훈(뜻)과 음(소리)을 쓰세요.

1 나는 出國 수속을 밟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훈 음

2 운동장으로 선수들이 入場하고 있습니다.

훈 음

3 正直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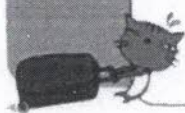
훈 음

4 교통 사고가 나기 바로 直前의 상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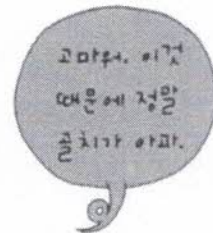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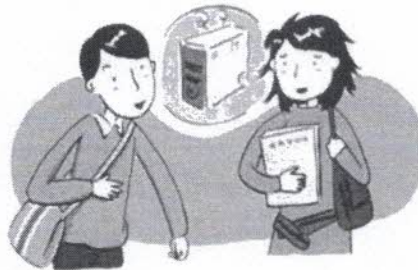
훈 음

5 적들이 四方으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훈 음



대화



- 지 영: 컴퓨터가 또 고장이야. 빨리 리포트를 써야 하는데.
 민 수: 또 고장이 났어? 얼마 전에도 손을 봤잖아.
 지 영: 맞아. 우리 조카가 컴퓨터를 만지고 나면 항상 고장이 나.
 민 수: 이번에도 그 조카 때문이야? 컴퓨터를 쓰지 말라고 하지.
 지 영: 물론 그랬지. 그런데 이 녀석이 나 몰래 쓰다가 또 고장을 낸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민 수: 미운 일곱 살이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봐. 아이고, 말썽꾸러기 녀석! 손 좀 봐야겠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지 영: 그럼 내 컴퓨터 손 좀 봐줄래? 바쁠 텐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
 민 수: 괜찮아. 네 컴퓨터 손봐주는 김에 네 방 구경도 하고 좋지, 뭐.
 지 영: 그래? 집에 가서 빨리 방청소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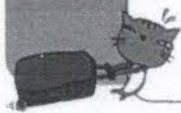
※ 손(을) 보다: ① 고치다 ② 혼내 주다

활용예문

- ▶ 세탁기가 또 고장 나서 손 좀 봐야할 것 같아요.
- ▶ 누가 너를 괴롭히니? 내가 손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
- ▶ 가: 휴대폰 전원이 자꾸 저절로 꺼져서 정말 불편해요.
- 나: 빨리 손봐야겠군요. 중요한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지다 | <input type="checkbox"/> 밟다 | <input type="checkbox"/> 말썽꾸러기 | <input type="checkbox"/> 세탁기 | <input type="checkbox"/> 괴롭히다 | <input type="checkbox"/> 전원 |
| <input type="checkbox"/> 저절로 | <input type="checkbox"/> 꺼지다 | <input type="checkbox"/> -는 김에 | | | |



함께해요.



여러분의 손금은 어떤 모양이에요? 손금을 보면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 생명선

- 선이 굵고 길고 선명하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선이 가늘고 주변에 실선이 많으면 건강하지 않다.
선이 넓게 구부러져 있으면 운이 좋다.

◎ 감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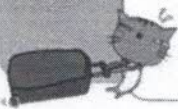
- 선이 길면 정이 많고 감성적이다.
선이 짧으면 이성적이다.
선이 위로 향하면 낙천주의자다.
선이 아래로 향하면 비관주의자다.

◎ 지능선

- 선이 굵고 선명하면 머리가 좋다.
선이 감정선에 가까우면 현실주의자다.
선이 생명선에 가까우면 이상주의자다.

한 걸음 더

- ▶ 손(을) 쓰다(⇒) 필요한 해결 방법을 쓰다
병원부터 가 보세요. 빨리 **손쓰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 ▶ 손(을) 씻다(⇒) 관계를 끊고 나쁜 일을 그만하다
이제 **손을** 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보려고 해요.
- ▶ 손에 익다(⇒) 일에 익숙하다
아직 운전이 **손에** 익지 않아서 장거리 운전은 힘들어요.



대화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이라는 소설로 '올해의 최고 작가상'을 받은 김현자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 씨,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자: 네, 제 책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눈팔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이 책을 쓰시면서 건강이 나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자: 지난 2년 동안 글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회자: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책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현자: 남편과 자식 밖에 모르고 살던 한 여자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는데 그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자: 이 책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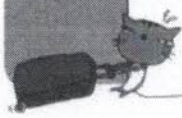
※ 한눈(을) 팔다 : ①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다 ② 외도를 하다

활용예문

- ▶ 운전할 때는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돼요.
- ▶ 나 몰래 **한눈팔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 ▶ 가: 많은 가수들이 드라마에 출연하지만 이 가수는 **한눈팔지** 않아요.
- 나: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 가수가 참 좋아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작가 | <input type="checkbox"/> 모시다 | <input type="checkbox"/> 진심 | <input type="checkbox"/> 팔다 | <input type="checkbox"/> 몰두하다 | <input type="checkbox"/> 신경(을) 쓰다 |
| <input type="checkbox"/> 간단히 | <input type="checkbox"/> 자식 | <input type="checkbox"/> 용서하다 | <input type="checkbox"/> 출연하다 | <input type="checkbox"/> -다 보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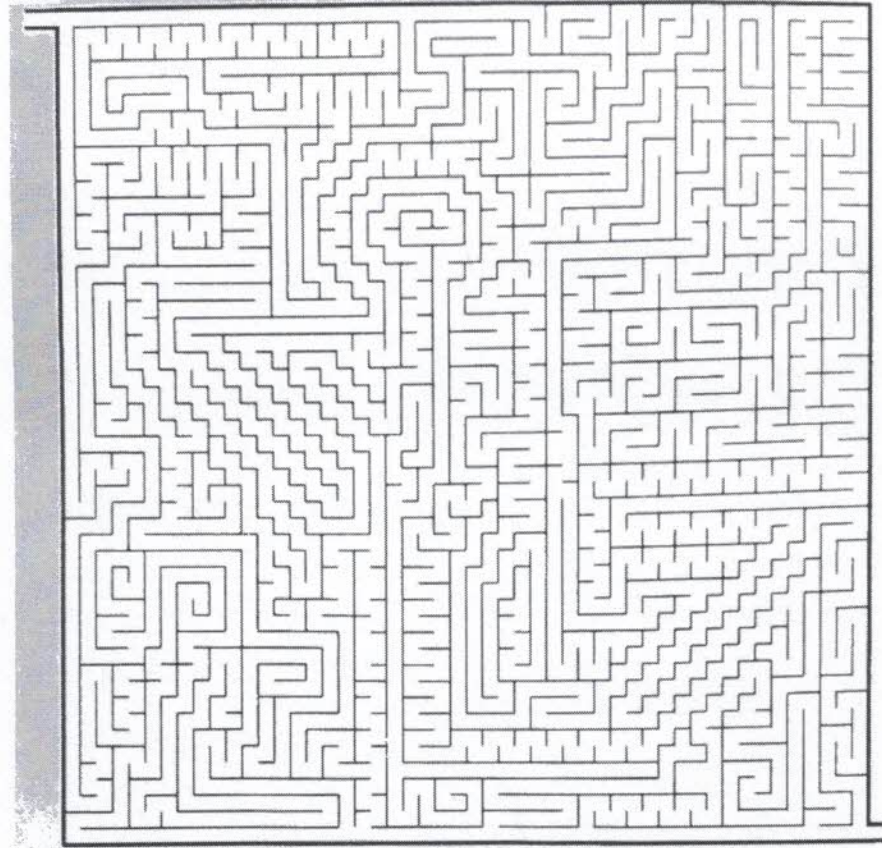


함께해요



누가 먼저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눈을 팔면 탈출할 수 없어요. 친구와 같이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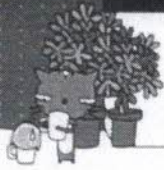
출발



도착

한 걸음 더

- ▶ 눈에 밝히다(⇒) 자꾸 생각나다
쇼윈도 안에 걸려 있던 빨간 원피스가 자꾸 눈에 밝혀요.
- ▶ 눈(이) 맞다(⇒) 남녀간에 사랑의 뜻이 통하다
매일 남자 친구의 편지를 받던 그녀는 우체부와 눈이 맞아 버렸다.
- ▶ 팔다
 - 저희 어머니는 20년 동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계십니다.
 - 성공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손을 보다 손을 쓰다 한눈을 팔다 눈에 밝히다

- 1 가: 오늘부터 _____ 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하기로 마음먹었어.
나: 잘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 봐.
- 2 가: 하루 종일 일도 안하고 왜 그래요?
나: 병원에 있는 아이 얼굴이 자꾸 _____ 일을 못 하겠어요.
- 3 가: 지난주부터 계속 라디오가 이상해요.
나: 제가 _____?
- 4 가: 수출 계약이 취소될 뻔 했대지요?
나: 네, 다행히 빨리 _____ 일이 잘 해결됐어요.
- 5 가: 손이 왜 그렇게 부었어? 다쳤어?
나: 친구를 괴롭히는 못된 아이들을 _____ 다가 이렇게 됐어.
- 6 가: 빙판길에서 _____ 다가 미끄러졌어요.
나: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손(을) 보다 / 한눈(을) 팔다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민지: 준기 씨,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줄래요?

준기: 어떡하지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민지: 왜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준기: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손보는 중이에요.

민지: 어머, 사고가 났어요? 안 다쳤어요?

준기: 네, 다치지지는 않았는데 좀 놀랐어요. 운전 중에 한눈을 팔다가 앞차를 박았거든요.

민지: 운전하면서 한눈을 팔면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라도 지나갔어요?

준기: 하하하, 어떻게 알았어요?

민지: 정말이에요?

준기: 농담이에요. 길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것을 정신없이 보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민지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였어요.

민지: _____

준기: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준기는 오늘 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 2 민지는 준기가 한눈을 판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 3 여러분이 한 눈을 팔게 될 때는 언제예요?

새 어휘

☐ 태워주다☐ 박다☐ 촬영하다

1. 한글 소설과 판소리



임꺽정, 장길산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알려져 벼슬아치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홍길동이 소설로 쓰였어요. 허균이 광해군 때 쓴 <홍길동전>은 한글로 쓰인 우리 나라 최초의 소설이었지요. 한글 소설은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홍길동전>과 더불어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남정기¹⁾>를 비롯하여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등과 같이 한글로 쓰인 소설들이 크게 유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작품으로는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또한 사랑 이야기를 과장되지 않게 풀어 내면서, 중간중간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까지 있어 백성들에게 널리 읽혔지요.

양반과 벼슬아치들에 대한 풍자(諷刺)²⁾는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쓴 한문 소설에도 나타났어요. 박지원이 쓴 <양반전>, <허생전> 등이 좋은 예이지요.

광대³⁾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판소리였어요. 판소리는 일종의 노래극으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말과 창으로 엮어 부르는 거예요.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시작되어 정조 때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요.

특히 신재효는 30년간 판소리를 연구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작품을 정리했어요. 그가 정리한 판소리 작품으로는 춘향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심청가 등이 있어요.



판소리가 널리 유행하면서 인형극이나 탈춤도 유행했어요. 탈춤은 여러 가지 표정의 탈을 얼굴에 쓰고 추는 춤으로, 처음에는 농촌에서 많이 펼쳐졌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장시(場市)⁴⁾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옮겨 장시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탈춤과 함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불렀던 것으로, 민요가 있어요. 판소리가 훈련이 잘 된 가수가 부르던 것이라면 민요는 백성들이 쉽게 흥을 내며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였지요. 또 광대놀이, 꼭두각시놀음 등 독특한 놀이들도 행해졌어요.

※ 잠깐 퀴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쓰인 소설은 무엇인지 작가와 작품은 무엇인가요?

정답 : 허균, 홍길동전

2. 소박한 조선의 미술

조선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김홍도의 그림은 엄격하고 딱딱했던 양반들의 그림과는 달리 백성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솔직하면서도 재미있게 담았어요. 이처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담아 낸 그림을 풍속화라고 해요.

조선 시대의 풍속 화가로는 신윤복과 김득신을 빼 놓을 수 없지요. 이들의 그림은 김홍도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신윤복 이전의 그림은 중국의 그림 그리는 법을 많이 따랐어요. 신윤복은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삶을 새롭게 그려 냈지요. 또한 신윤복은 양반이나 부녀자들은 물론 무당이나 기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냈어요. 그래서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지요.



연못가의 여인 (신윤복 그림, 18~19세기)

신윤복에 버금가는 풍속 화가로는 김득신이 있었어요. 김득신은 풍속화와 인물화를 잘 그렸지요. 그의 그림은 곳곳에 재치와 익살을 품고 있으면서도 매우 잘 짜여져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우아한 느낌을 받게 해요.

신윤복이나 김득신은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김득신의 그림 중에는 김홍도의 그림과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 것도 있어요. 풍속화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선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소박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화와 예술이 크게 발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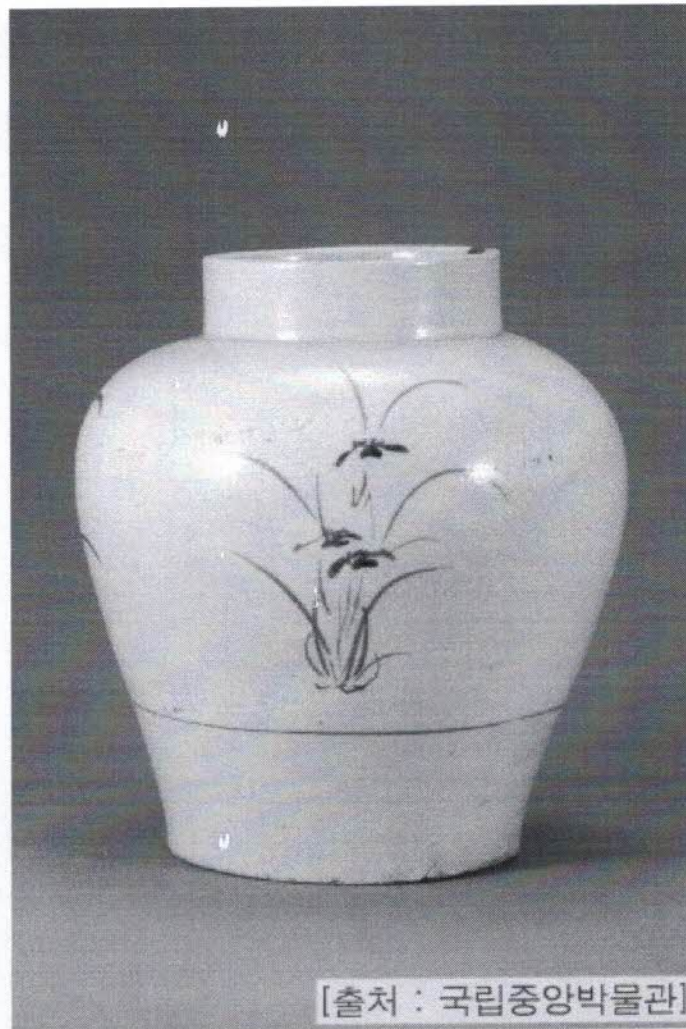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즐거운 잔치(김득신 그림, 18~19세기)

유교를 따랐던 조선에서는 사치를 부리거나 화려함을 좇기보다는 검소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지요. 조선 미술의 소박함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을 거예요.

조선 미술의 소박함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백자예요. 조선의 고유한 도자기인 백자는 깨끗한 선비와 순박한 백성들의 마음처럼 흰 빛을 띠고 있어요. 이 흰 빛은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지요. 백자에 넣는 그림도 보통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선비의 정신에 비유되는 대나무, 난초, 매화, 국화의 사군자나 간결한 산수화가 주를 이루었지요. 조선 백자는 이렇듯 간결하고 소박했지만 예술성에서는 빼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특히 도자기를 좋아해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백자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도공(도자기를 굽는 기술자)들까지 잡아가기도 했지요.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백자 청화 난초무늬 항아리(18세기)시원한 공간 속에 간결하게 자리잡고 있는 난초가 조선 백자의 소박하면서도 고고한기품을 느끼게 해 준다.

한편, 조선은 후기로 들어서면서 그림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양반이나 도화서 화원이 아닌 보통 백성들 중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지요. 이들을 서민 화가라고 해요.

서민 화가들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림을 주로 그렸어요. 이런 그림들을 민화라고 하지요. 민화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으므로 어둡고 칙칙하기보다는 밝고 화려하지요.

이렇게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풍속화, 민화 등 조선 후기에 들어서 양반이 아닌 서민들이 즐기고 만 들어가는 예술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까치와 호랑이(19세기)

〈조선 시대 화가와 김홍도〉

그림은 조선 시대 양반들이 갖춰야 할 교양 중 하나였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양반들과는 달리 직업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이었어요. 화원들은 '도화서'라는 관청에 속해 있었고 중인 신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재능을 인정 받아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김홍도는 스무살쯤 되었을 때, 이미 최고의 작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 전국을 돌며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어요. 이때 나온 것이 풍속화이지요. 김홍도는 색깔의 진하기를 조절해 물체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3. 내용 정리

조선 후기, 서민들에게는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비롯해 작가를 알 수 없는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또한 판소리와 인형극, 탈춤이 널리 행해졌으며, 백성들은 민요를 즐겨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의 그림에서는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이 가장 뛰어난 화가들입니다. 그들은 소박하면서도 사실적인 풍속화를 많이 남겨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린 민화도 조선 시대 서민들의 문화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한자>

* 다음 한자의 뜻을 쓰세요.

1. 市內
2. 白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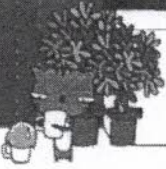
* 다음 밑줄 친 구절의 뜻에 가장 가까운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 ① 同色 ② 前後 ③ 前年 ④ 植木
3.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
 4. 한 사람이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

<역사> 정조, 학문을 발전시키다.

1.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하던 정조는 왕이 되자 창덕궁 비원 옆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바로 ()이에요.
2. “나라에 충성을 하는데 첩의 자식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소. 앞으로는 ()도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3. 정조는 영조에서 죽음을 당한 ()의 아들이었어요.
4.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는 사도 세자가 죽을 당시의 일을 기록해서 <한중록>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5. 서얼 출신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아 <발해고>라는 책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35 손발(이) 맞다 36 쥐도 새도 모르게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손발이 맞다 손이 빠르다 쥐도 새도 모르게 쥐죽은 듯하다

- 1 가: 교실이 _____ 조용한데 무슨 일이 있어?
나: 곧 기말 시험이 시작되잖아. 몰랐어?
- 2 가: _____ 아이가 사라졌는지요?
나: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 3 가: 마이클 씨, 이번에도 같이 일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나: 저도 그래요. 우리는 _____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 4 가: 언니 결혼 선물로 주려고 이틀 만에 만든 방식이에요.
나: 아주 예쁘네요. 이걸 이틀 만에 만들었어요? 정말 _____.
- 5 가: 밤새 _____ 첫눈이 내렸네.
나: 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어.
- 6 가: 만화책 좋아하세요? 탐정 만화는 이 책이 제일 재미있지요?
나: 네, _____는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정말 재미
있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토끼전

1. 작품 소개

동물을 인간과 같이 표현한 우화 소설로, 동물들을 통해 조선 시대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풍자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구전되는 과정 중에 다양한 결말의 작품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각각의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소설을 읽어 보자.

1)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시간 - 옛날, 공간 - 용궁, 산속
- 주제 :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자.
- 특징 : 동물의 특징을 잘 살려 의인화하고 있음.

2) 등장 인물

- **별주부 자라** : 용왕의 신하로, 충성심이 깊어요.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물으로 토끼를 잡으러 가요.
- **토끼** : 욕심도 많고 꾀도 많아요. 자라의 꼬임에 넘어가 용궁으로 들어오지만 꾀를 부려 위기에서 벗어나요.
- **용왕** : 바닷속 임금이에요.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 **자가사리** : 토끼의 꾀에 넘어가는 용왕에게 바른 말을 하지만 오히려 벌을 받아요.

토끼전



토끼

욕심 많고,
피가 많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자라의 꼬임에 넘어감.

용왕을 살리기 위해
물로 토끼를 잡으려 감.



자라

충성심이 강한
용왕의 신하.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토끼를 희생시키려 함.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용왕을 속임.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인
토끼 간을 구해오라고
자라에게 시킴.



용왕

바닷속 임금.

3) 줄거리

어느 날, 북해 용왕은 우연히 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줄 약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효험이 있는 약은 어느 곳에도 없고 용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연히 한 도사가 나타나 용왕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알려 주자, 용왕은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 올 신하를 찾는다.

여러 신하가 모인 중에 별주부(자라)가 앞으로 나서며 자기가 토끼를 잡아 올 것임을 아뢰자,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충성심을 칭찬한다. 이리하여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는 토끼를 만나, 아름다운 용궁의 경치와 풍성한 먹을거리를 자랑하기도 하고, 육지에서 살다가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협박도 하면서, 자기와 함께 용궁으로 가자고 토끼를 꼬드긴다.

결국, 토끼는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 지난해에 새로 맞이한 아내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용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병이 난 용왕이 먹을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 자라가 육지로 올라가다.

남해의 용왕은 온갖 맛 좋은 음식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던 용왕은 과하게 는 탓인지 병이 나고 만다. 신하들은 당황하여 약이란 약은 다 써보지만 소용이 없다. 그러던 중 하늘의 신선이 찾아와 용왕을 진찰해보고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에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모아 누가 육지로 토끼 간을 찾으러 갈 것이냐고 묻는다. 아무도 나서는 신하가 없는 와중에 자라가 나서 토끼 간을 구해오겠다고 한다. 자라는 화공(화가)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지고 토끼를 찾아 육지로 올라간다.



자라

털 달린 동물들의 모임에서 토끼를 만나게 되다.

자라는 육지에 올라와 남생이를 만난다. 왜 육지에 올라왔느냐 묻는 남생이에게 자라는 용궁의 수정궁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눈 밝은 토끼의 도움이 필요하여 토끼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남생이는 마침 자신이 털 달린 동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았으니 자기 집에 있다가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 토끼를 만나자고 한다.

자라는 남생이 집에 머물렀다가 털 달린 동물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토끼를 만나게 된다.

토끼를 꼬드겨 용궁으로 데려가다.

자라는 토끼를 ‘토생원’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접해준다. 그러면서 용왕이 지혜로운 새 신하를 찾고 있다며 자신과 함께 용궁에 가자고 꼬드긴다. 그러나 토끼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용궁에 가기가 꺼려져 망설인다. 자라가 망설이는 이유를 물으니 토끼는 산속 생활의 좋은 점만 골라 허풍스럽게 늘어놓는다.

그러나 자라는 산속 생활의 좋은 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점도 알고 있어서 토끼의 허풍을 꿰뚫어본다. 의심 많고 허풍스러운 토끼를 어떻게 꼬드길까 생각하던 자라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보이지 않으면 그뿐이라고 하며 혼자 용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토끼는 자라를 불러 세우며 함께 용궁에 가겠다고 한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안 토끼가 꾀를 부려 다시 육지로 올라오다.

의심 많은 토끼는 용궁문 앞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용궁의 사정을 물어본다. 평생 물속에서만 살아 토끼의 생김새를 몰랐던 문지기들은 용왕이 병에 걸렸으며, 토끼 간을 먹어야 나올 수 있더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어떻게든 살아서 육지로 돌아갈 궁리를 하게 된다.

자라와 함께 용왕 앞으로 불려나간 토끼는 육지에 간을 놓고 왔다면 육지로 돌려보내주면 자신의 간도 가져오고 소나무에 걸려 있는 다른 토끼의 간도 갖고 오겠다고 한다. 자라는 이 말을 믿지 않지만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 후 육지로 가라고 한다. 토끼는 용궁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은 후 자라와 함께 육지로 올라온다.



용왕

토끼, 자신을 속인 자라를 혼내고 간 대신 똥을 주어 용왕이 먹고 병이 나을 수 있게 하다.

육지로 올라온 토끼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 높은 언덕까지 올라간다. 그리곤 자신을 속여 용궁에 데려간 자라를 혼낸다. 또, 세상에 자기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며 약을 올리기도 한다.

속은 것을 알고 분해하는 자라에게 자신의 똥이 열을 내리는 데 좋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똥을 싸 칩앞에 싸서 준다. 자라는 토끼똥을 가지고 가 용왕에게 먹이고, 토끼똥을 먹은 용왕은 병이 낫는다.

2. 감상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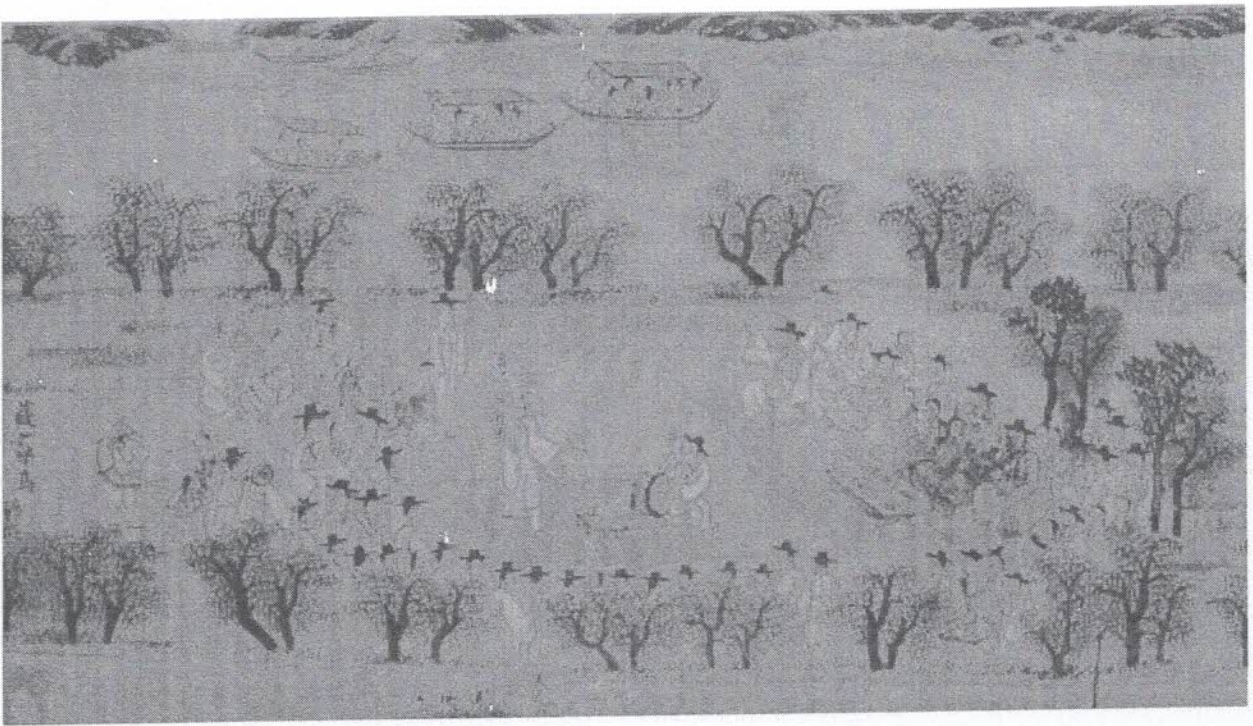
‘토끼전’은 동물들에게 일정한 인간의 성격을 부여하여 인간 세상을 풍자한 우화 소설로, 당시 지배층의 비리나 모순, 부정부패 등의 문세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가 죽을 뻔한 토끼, 임금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별주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려는 용왕의 모습은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이긴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용왕과 같은 이기심이나 별주부와 같은 헛된功名심, 그리고 토끼와 같은 허영심은 없는지요? 동물들로 비유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각자의 삶에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을 찾으며 읽어 보세요.

3.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토끼전’은 판소리계 소설이라 작가를 알 수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설화 ‘구토지설’을 바탕으로 해서 판소리 ‘수궁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설로 정착한 것이 ‘토끼전’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개작되면서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다양한 이본(異本)¹⁾이 존재한답니다. 판소리는 당시 서민들이 품고 있던 사회적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에는 서민들의 눈에 비친 지배층의 부패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답니다.



모홍갑의 판소리도 (서울대박물관 소장)

4. 작품의 다양한 결말

1)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고 자라가 자살하는 결말

자라 하릴없이 탄식 왈, “간특한 토끼에게 속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용왕을 보리오. 차라리 죽음만 같지 못하다.”하고 글을 지어 바위 위에 붙이고 머리를 바위에 땅땅 부딪쳐 죽었더라. 이때 용왕이 자라를 보낸 후 소식 없음을 꾀어 여겨 자라의 형 대사성 거북을 시켜 그 까닭을 알아 오라 했다.

거북이 즉시 물가에 이르러 살펴보니, 바위 위에 글을 지어 붙이고 그 곁에 자라의 시체가 있었다.

거북이 불쌍히 여겨 통곡하고 자라의 시체와 글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와 아뢰니, 용왕도 불쌍히 여겨 예물을 내려 후하게 장사 지내 주었다. — 경판본²⁾ ‘토생전’

2) 자라가 토끼를 놓치고 수궁행을 포기한 결말

토끼가 도망간 후 자라는 기가 막혀 통곡하고 나서, 간도 얻지 못하고 무슨 면목으로 수궁에 돌아가 용왕을 뵈느냐며 수궁행을 포기한다.

그 길로 소상강에 돌아가서 대수풀에 의지하여 망명하여 사는 고로 그 자손 세상에 두루 퍼지고, 자라 부인 암자라는 토 선생과 이별 후에 상사병이 되어 몇 개월 신음하다 속절없이 죽었으니, 수궁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서 별주부를 생각하여 그러하다 하고 용왕에게 글을 올려 열녀문을 내렸고, 용왕도 토끼를 기다리다 병이 점점 더하여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피하였다가 별세하고 세자 즉위하여 수궁이 태평해진다. — 가람본³⁾ ‘별토가’

3) 용왕이 토끼의 똥을 먹고 병을 치료한 결말

이때 용왕이 토끼의 똥을 먹고 병이 나아 자라는 충신이 되었다. 토끼는 신선을 따라 달로 올라가서 이때까지 약 방아를 찧고 있다. 자라와 토끼란 다 미물인데 장한 충성과 많은 찢는 사람하고 같은 까닭에 타령을 만들어서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토끼와 자라만 못하면 그 아니 부끄러운가, 부디부디 조심하오. — 완판본⁴⁾

‘퇴별가’

잠깐 퀴즈

글을 읽고 아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이 소설은 (포 스 르)계 소설이다.
2.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를 찾아 나선 인물은 000이다.
3. 토끼는 장가를 보내 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수궁에 따라간다. (O, X)
4. 용왕의 병에 좋은 약은 토끼의 O이다.
5. 수궁에서 살아 돌아온 토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는 (즈 흥)'와 '헛된 (0 스)'에 대한 경계' 등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끼전 (천재학습백과 미리보는 중학 문학)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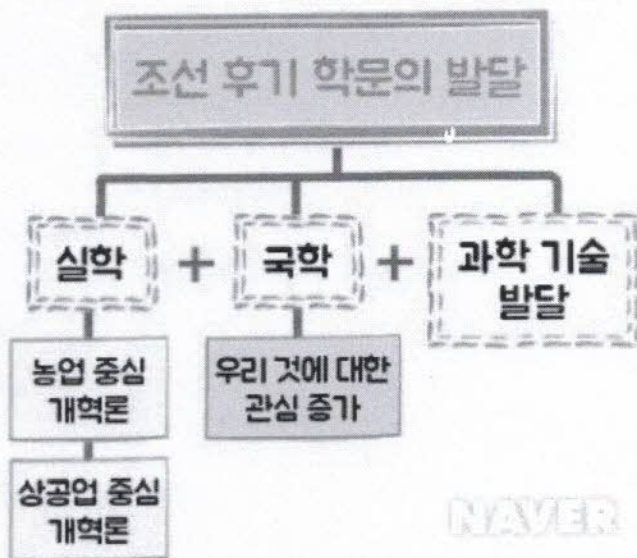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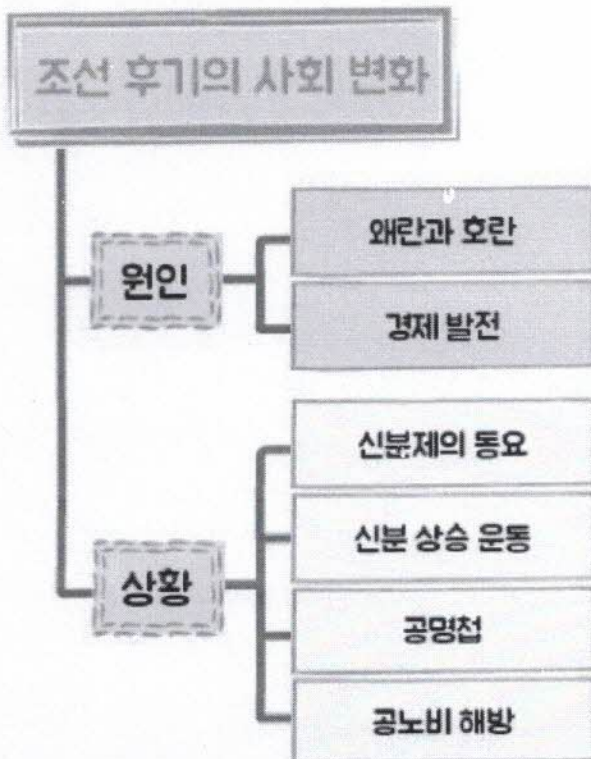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 재배 등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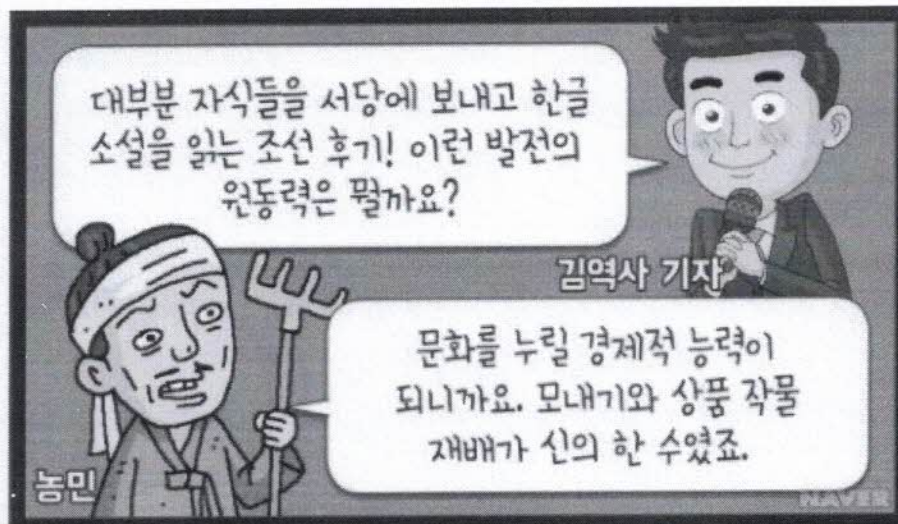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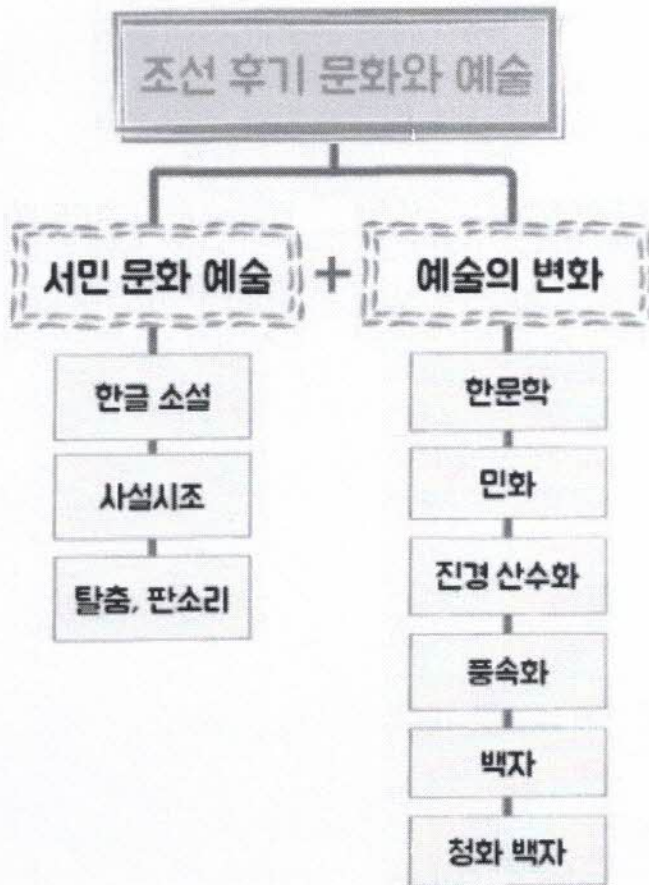
또 왜란과 호란을 거친 후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렸지요.

학문적인 면에서는 성리학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실학이 등장했어요.

한편 경제적으로 성장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1.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의 농토는 매우 황폐해졌어. 사람들은 땅을 개간해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데 노력했어.

새로운 농사법도 속속 등장해 조선의 경제는 크게 나아졌지.

농업 발달

모내기법

모내기법은 모판에 볍씨를 뿌려 모를 미리 길러서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야. 모를 옮겨 심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 심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게 되었지.

결국 한 사람이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어. 또한 모내기법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어.



모내기 모습을 담고 있는 「누숙정직도」

이모작

이모작(二毛作)은 ‘두 번[二] 식물[毛]을 심는 것’을 말해.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추수를 해.

모내기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볍씨를 뿌리는 시기와 보리의 수확 시기가 겹쳐서 같은 땅에 연달아 심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모내기법이 실시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진 거야.

상품 작물

내가 먹고자 농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

인삼, 담배, 채소, 목화 등이 대표적이야.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했어.



대표적인 상품 작물인 목화

상업 발달

장시

시골에 가면 3일 혹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 있지? 이것을 장시라고 해.

지금은 인구가 많아 항상 가게를 열어도 이익이 남지만 조선 시대에는 인구가 적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드물어 매일 가게를 열면 손해를 보았어.

그래서 상인들은 물건을 구입해 줄 사람들을 찾아 이동하며 장시를 열었던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장시는 매일 문을 여는 시장으로 변했어.

육의전

육의전은 한양의 종로에서 국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았던 가게야. 명주, 종이, 어물, 모시, 비단, 무명의 여섯 종류를 중점적으로 팔아 육의전이란 이름을 얻었어.

육의전 상인은 다른 상인에 비해 특별한 권력을 누렸어.



한지

시전

시전은 나라에서 설치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전 상인은 시전에서 나라의 감독 아래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하지.

난전

난전(亂塵)은 ‘어지러운[亂] 시장[塵]’이란 뜻이야. 왜 어지럽다고 표현했을까? 난전은 시전이 아니라 개인이 물건을 들고 나와 불법적으로 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모내기법의 실시와 상품 작물의 재배로 경제가 커진 조선 후기에는 시전만으로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서 전국 곳곳에 난전이 생겼어.

하지만 시전 상인 입장에서는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장을 여는 난전이 미웠을 거야.

금난전권

금난전권(禁亂塵權)은 ‘난전[亂塵]을 금지[禁]하는 권리[權]’를 말해. 육의전 상인이나 시전 상인은 나라에 세금을 냈지만 난전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라에서는 시전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난전을 단속했어.

하지만 난전을 단속하면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결국 난전을 금하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정조 때 폐지하게 되었어.

수공업 발달

민영 수공업

조선 전기에는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후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어.

선대제

선대제(先貸制)는 ‘먼저[先]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貸] 제도[制]’를 말해.

수공업자들의 공장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미리 자금과 원료를 제공하고 나중에 제품을 받는 선대제가 유행했어.

2.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상황

신분제의 동요

조선 후기에는 붕당 정치가 다른 당을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게 되면서 몰락하는 양반들이 증가했어.

당연히 권력을 가진 일부 양반만이 양반다운 생활을 했고 대다수 양반은 농민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어. 반면 부유한 상민들이 증가해 신분제가 요동치게 되었지.

신분 상승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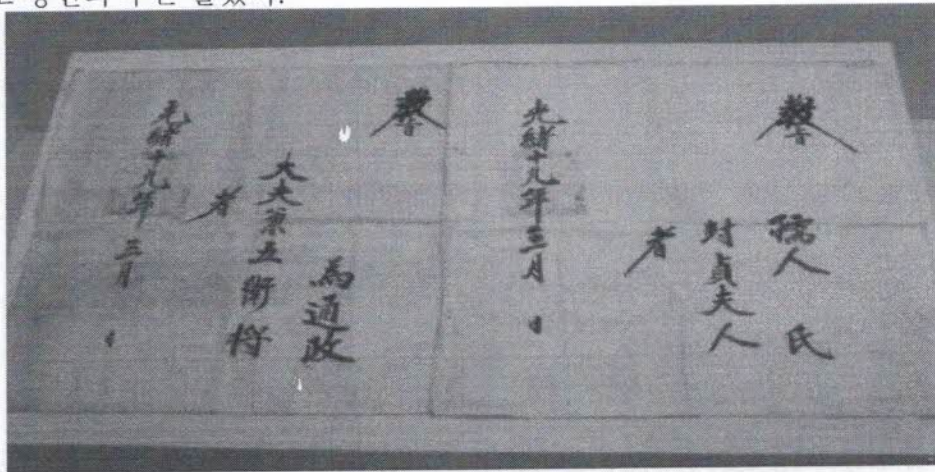
중인 계층인 서얼은 영조와 정조 때 차별이 줄면서 정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 또 중인들도 자신들의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했어. 이러한 현상을 신분 상승 운동이라고 해.

공명첩

공명첩(空名帖)은 '이름 쓰는 곳[名]이 비어[空] 있는 문서[帖]'라는 뜻이야. 왜란과 호란 이후 정부가 부족한 나라 재정을 메우기 위해 발행했어.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 재배로 부자가 된 일부 농민들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 신분을 얻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양반의 족보를 구입하거나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했어. 결국 양반의 수는 크게 늘고 상민의 수는 줄었어.



공명첩

공노비 해방

노비들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돈으로 신분을 사서 천민에서 벗어났어. 또 먼 곳으로 도망을 가 노비가 아닌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조는 나라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어. 이들은 양인으로서 세금을 내 나라 재정에 이바지하기도 했지.

3. 조선 후기 학문의 발달

실학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성리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지. 백성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양반들이 중시하는 성리학에 백성들은 등을 돌렸어.

이 무렵 실증적인 방법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학문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실학이라고 불러.

농업 중심 개혁론

실학자들 중에는 대다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거나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량 중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농이 증가하는 현실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대표적이야. 이들은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해.

상공업 중심 개혁론

실학자들 중에는 상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도 있었어. 이들을 북학파라고 하는데,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대표적이야.

이들은 청과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상공업 발달을 이루어 나라의 부를 키워야 한다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어.



정약용 초상화

국학

실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 우리 역사, 한글, 우리 땅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국학이라고 해.

역사학 부분에서는 이익, 안정복, 유득공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술했지.

지리학 부분에서는 이종환, 정상기, 김정호가 활약했으며 신경준과 윤희는 한글을 연구했어.



박지원 초상화

과학 기술 발달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청에 간 사신들은 그곳에서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접하게 되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과학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지.

홍대용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했고, 세계 지도가 들어와 조선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어.

4. 조선 후기 문화와 예술

서민 문화 발달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 재배로 경제력을 갖추게 된 상민층은 이제 문학과 예술을 누릴 만큼 의식이 성장하게 되었어.

여기에는 서당이 널리 퍼져 서민도 기초적인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지.

이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민 문화가 나타나 널리 퍼졌어.



김홍도의 「서당」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서당의 모습

한글 소설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양반의 태도를 비판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비꼬았던 것이 한글 소설의 특징이야.

특히나 서얼에 대한 차별 비판, 탐관오리 혼내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홍길동전』이나 신분 차별을 극복한 『춘향전』 등이 인기를 끌었어.

사설시조

조선의 시조는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추는 형식미를 중시했어.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사설시조가 등장했지.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사설시조의 특징이야.

탈춤, 판소리

탈춤과 판소리는 춤과 노래, 이야기로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야.

지방의 장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연했어. 특히나 탈춤은 양반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었어.

예술의 변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예술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게 돼.

한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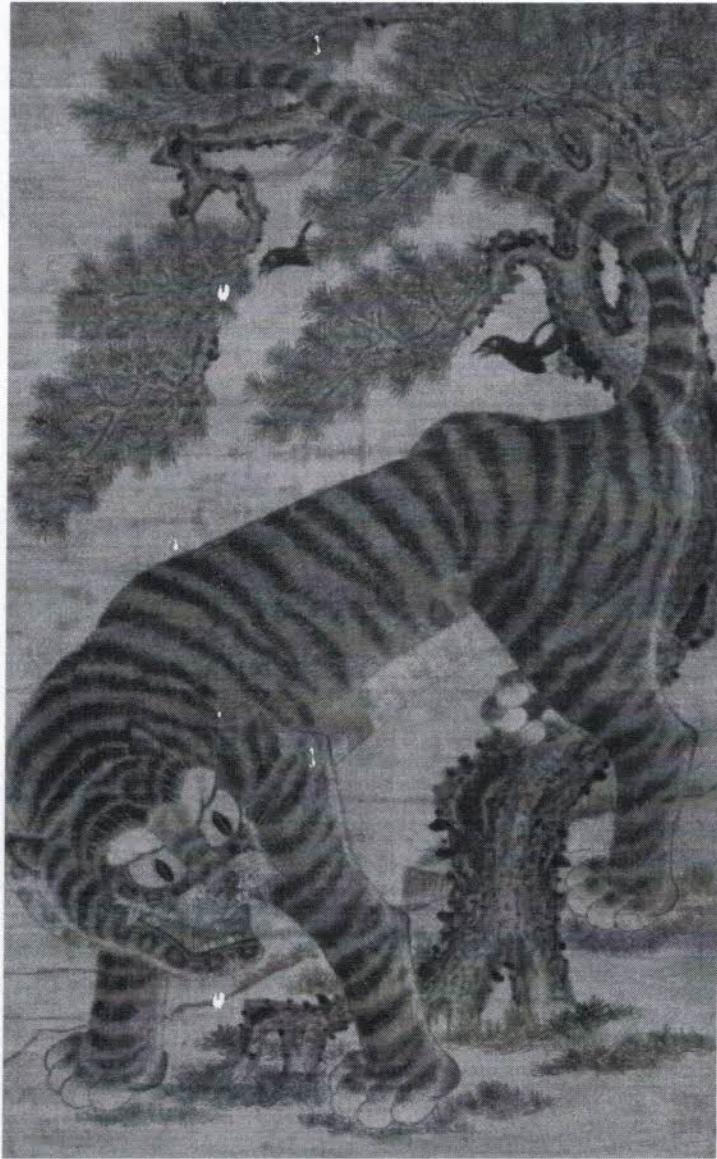
양반층이 즐겼던 한문학에서도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이 등장했어.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등을 지어 양반을 비판했거든.

교육을 받은 중인들도 문학 활동을 즐기기도 했어.

민화

백성의 소원을 표현하고 집안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그림이 있어. 바로 민화야.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 다양한 소재가 자유롭게 그려져 있지. 장수, 건강, 합격, 부귀 등 다양한 백성의 소원을 표현한 소박한 그림이야.



「작호도」 까치와 호랑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 까치는 복을 가져오는 동물,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쫓는 동물을 의미해.

진경 산수화

산수화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야. 그럼 진경(眞景)은 무슨 뜻일까? 진짜[眞]경치[景]를 진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전 그림은 중국의 것을 따라 하곤 했어. 하지만 정선은 중국과 다른 우리 경치를 그대로 화폭에 옮긴 진경 산수화를 그렸지.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 「인왕제색도」는 참신한 구조와 웅장한 풍경이 인상적이야.

풍속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그림이 풍속화야.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을 들 수 있어. 김홍도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했어. 신윤복은 섬세하고 세련된 그림으로 양반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을 그렸지.



김홍도의 「자리짜기」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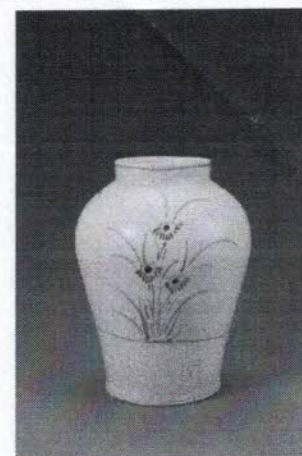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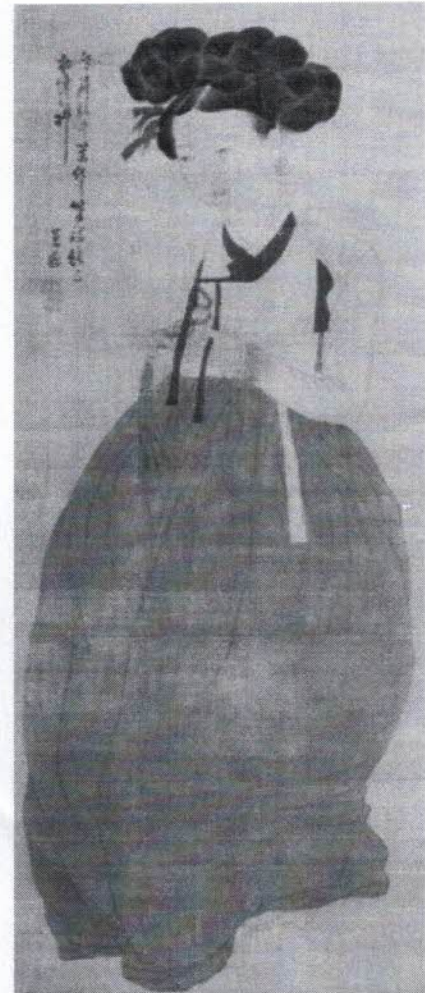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형태가 단순하고 꾸밈이 거의 없는 백자가 널리 유행했어.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춘 백자는 서민들도 많이 사용했어.

푸른빛이 도는 화려한 청자는 고려 시대, 소박하고 담백한 백자는 조선 시대라는 것 잊지 마.

청화 백자

백자 중에서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장식을 한 청화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어.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 (생방송 한국사 9, 2017.04.03., (주)북이십일 아울북)



조선 후기의 청화 백자